

蘇聯經濟 - Gorbanomics (Ⅱ)

國際部

7. 産業革命

만일 여러분이 소련 최고의 기술을 알고 싶다면, 일본에 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영국인들의 귀에는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일본인들은 소련의 특허를 구매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전산업에 적용시킴으로써 소련을 능가하고 있다. (예, 연속주강 제조기술)

한편 소련은 기술의 전파가 늦거나 또는 전혀 기술이 파급되지도 않고 있다.

소련의 문제는 발명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소련의 문제는 생산과 새로운 공정을 혼합시키는 데까지 연구를 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서방 연구보고에 의하면 소련인이 발명 특허 (소련에서는 “저작권 증명서”라 칭함)를 받은 후 2년동안 단지 23%만이 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66%, 서독에서는 64%가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기술발명 다음 단계로서 동기술을 더욱 많은 가능한 분야에 적용시키는 것이 소련에서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련이 발명한 연속주강 제조기술의 경우 처음 기술을 사용한지 27년이 지난 1982년까지 전체 소련 철강산업 분야에서 12%만이 동기술이 보급되었으나 서독은 62%, 일본의 경우 79%까지 보급되었다.

경제체제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되어 왔다. 연구기관은 대체로 생산 공장과는 별개로 운영되어 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공장들이 거의 모두 자신들의 고객들과는 전혀 별개로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생산공장 근로자들의 보너스는 담당 주무부처의 상관들이 지시하는 바 대로 물량 톤수만 생산해 내면 거침없이 지급되어 왔고 생산품 소비자와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물량 채우기에만 급급해 온 것이다.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할지 만무하였고 공장의 도산 위험성은 있지도 않았다. 물자부족으로 쪼들리는 소련에서는 못팔 물건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공장들이 고객이 좋아하는 최신, 최상의 상품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도 없거나와 이렇게 하기 위하여 동기 부여도 할 필요가 없었다. 반대로 생산량 목표달성을 위하여 압력을 받는 공장 관리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생산량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아무 짓도 하기 싫게 된다.

공장에서 발명을 생산에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기업체의 長의 답변을 들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목표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능력에 비교하여 약 50%가 더 높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하달된 계획 목표량을

감해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모든 공장들이 계획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무도 신기술 사용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계획 목표량 달성을 하면 33% 보너스를 받지만 신기술 개발을 하면 8% 보너스 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책임 계획 목표량을 감해 주지 않는 한 또는 추가생산 능력을 갖추어 주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련체제는 위대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또한 그 댓가로 소련의 산업화를 위한 파격적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지하자원들을 통제하는데는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아직도 몇가지 최우선 과제들(국방이나 우주개발 계획, 에너지 생산 계획 같은 것)을 위하여 전국력을 집중시키는데는 꽤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기술개발 승자들이 민첩성을 주무기로 하는 자유세계에서 볼 때 소련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은 형편없이 어색하게 보일 뿐이다.

Gorbachev가 권력을 잡았을 때 소련은 서방세계와 경제개발 경주에서 탈락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만이나 한국, 브라질 같은 신흥 자본주의 세력들에게까지 추월을 당할 위험성에 빠져 있었다.

모조품이라는 것은 소련의 대표적인 상표가 되어 있었다.

Glasnost 이전에는 소련 TV를 시청하는데 가장 흥미있는 것은 TV Set가 불붙을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생산 공장들은 녹슬어 있었고 20년 이상된 기계설비의 비율이 1980년에 16%이었던 것이 1985년에 21%까지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 노후된 기계설비는 점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염의 도는 높아만 갔다.

무엇보다도 가장 악화된 원인은 소련은 과거의 산업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 그들이 말하듯 저주받을 자본주의자들은 미래의 과감한

신세계 컴퓨터를 향해 전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컴퓨터 생산량은 아마 소련 생산량 보다 10배나 높으며, 소프트웨어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미국에서 1930년대에 전국적으로 설치 사용해진 전화망을 이용한 정보화 시대에 소련은 이제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소련연방내 도시간의 전화 사용을 위한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인들은 평균 25회를 사용하고 국제통화를 위해 미국인들은 약 150회를 사용한다.

소련산업의 퇴보를 막는 것과 관련산업의 퇴조를 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Gorbachev의 주요 목표인 것이다. 신기술 개발 투자 계획은 진취적이고 현대화된 경제를 위해 필요한 hardware를 제공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Gorbachev의 관리제도의 개혁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잘 만들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먼저 투자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Gorbachev는 1981년-1985년에 달성한 3%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1986년-1990년에는 5% 성장으로 전보다 더 빠른 성장을 위한 산업투자를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의 질적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투자는 싸고 더 빠른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싸고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 것 대신에 현존 공장들을 현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점유율이 1985년에 1/3이었던 것을 초과해서 1990년에는 1/2로 상승할 것으로 믿어진다.

가장 많은 투자의 소비는 기계설비 공장에 쓰여질 것이며 이 투자의 비율은 1985년-1990년 사이 8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믿어진다.

낡은 기계류는 빠른 상승률로 교체될 것이며 소련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제품인 새로운 기계들로 대체될 것이다.

1986년-1990년 경제개발계획을 보면 모든 기계설비류의 60%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Gorbachev는 소련의 민간산업을 광범위하게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방 분석가들은 Gorbachev의 투자계

획이 과도한 야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서방 분석가들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다.

PlanEcon의 추정계획에 의하면 Gorbachev는 과거 2년에 걸쳐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와 낙후된 시설개체를 위한 투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험성은 새로운 설비가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서 결보기에 그럴싸한 컴퓨터화된 기계설비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수평적 유대관계 및 수직적 관계

Gorbachev의 경제체제 개혁을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상식이하의 짓이다.

개혁의 이론이 전개됨에 따라, 생산공장들은 스스로 어떠한 투자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기업들간의 수평적 유대관계가 지금까지 지배하여 왔던 명령권자부터 최하위 말단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직적 명령체제 만큼 중요한 것이다.

수평적 관계를 창안해 내려는 시도가 모든 계층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 예로서 새로 전각료 협의회는 산업분야와 에너지분야에서 설비공장의 각기 다른 분야끼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보다 낮은 계층에서의 또 다른 수평적 조직은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회(조합)들이 생겨날 것이고 기업들은 개발연구나 생산분야에서 서로 합동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서 모델은 Gorbachev가 찬사를 표명하고 있는 동독의 Kombinat 체제인 것이다.

산업의 토대를 위한 기초배경으로서 국영기업 법률이나 이에 부수되는 부수법률들은 많은 공장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상부지시만 따르는 대신에 기업

상호간의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장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 개시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기업상호간의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중앙집권적인 공급체제상의 만성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즉 SARATOV에 있는 베어링 공장 임원이 “지난 25년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오면서 한번도 충분한 철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파격적인 변화는 심각한 곤욕을 치루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금년초에 이미 새로운 경영체제로 전향했던 공장들은 강제적인 “국가명령들” 때문에 그들의 생산품 전부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것은 즉 통상적으로 세우는 계획보다 덜 세밀한 국가계획하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공장들은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좀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1월달에 Sotsialisticheskaya Industriya는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에 접하게 된 첫번째 실패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관계부처들은 케케묵은 내용물이다 새로운 이름만 붙여 놓음으로써 아무 어려움 없이 개혁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외형상 새로운 국가 명령이라는 것은 케케묵은 생산계획 명령에 의거 공장들은 생산량 할당을 새롭게 받게 되었을 뿐이다.”

공장들 자체가 종종 고객들과 공급자들(훨씬 어려운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불확실성보다 국가 명령을 받기를 선호한다.

국가의 책임 공급 명령은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어쨌든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공급을 한다는 것은 물자부족에 허덕이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향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공장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 투자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려면 물자부족에 허덕여서는 안되고

공급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자체자금 조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가 믿는 것은 국가만이 여하한 손실도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의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많은 문제점들이 개혁정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가생산명령이 공장생산명령의 얼마를 점하게 될 것인가?

Mr. Aganbegyan은 생산의 60%가 1990 년까지도 때 유통구조를 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1992년 까지는 80-90%에 이를 예정이다. 이렇게만 되면 좋은 일이나 만약 국가생산명령이 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정책계획 수립자들이 독재를 쓰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물가의 사실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직접 물가 협상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된다.

도매유통 구조라는 것이 실질적인 것인지 가시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국가의 공급유통망을 통제하는 국가위원회 Gosstab에 의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정책계획 수립자들은 물자부족 현상하에서의 억압된 수요때문에 통제를 느슨하게 할 경우 기존의 공제도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경쟁과 파산, 둘 중에 하나가 정말 발생할 것인가?

만일 둘다 발생된다면, 공장들이 효율성을 성실히 추구하고,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도록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경쟁이 가장 진정한 형태는 소련 경제를 대외 세계로 개방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외무역은 소련이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급원과 소련경제의 경쟁력이 증진되었는지에 대한 척도로

서도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9. 오일 달러 이외의 국제무역

만일 한나라의 대외무역이 그 나라의 경제 활력을 시험하는데 있다면, 소련은 무력하게 보이는 것이다.

서방세계에서 비치는 소련의 조그만 수출규모와 원시적인 수출 패턴은 솔직히 말해서 제단에는 산업의 초강대국이지만 서방세계를 당황하게 만든다.

소련이 서방세계와 일본에게 수출하는 금액은 연간 약 200억 달러로서 이는 대만, 또는 한국보다 적은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소련 수출의 구조가 제3세계 나라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것이다. 즉 기계류가 5% 미만이고, 80% 이상이 에너지와 천연자원인 것이다.

Perestroika에 대한 보통 잘못된 개념은 서방세계와의 무역에서 갑작스런 경기호전으로 유도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Gorbachev는 소련을 재편성하는데 서방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자들과의 무역에 관한 유보권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나라가 서방의 생산품 공급에 의존하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고 정권을 잡은 후 Gorbachev는 말했다.

총리인 Mr. Nikolai Ryzhkov는 서방 기술수입은 소련이 국내에서 기술혁신을 늦추게 했다고 믿고 있다.

무역의 60% 이상이 Comecon(동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의기관)과의 무역이고, Gorbachev 팀은 소련의 지배집단이 더욱 상호 친밀해지길 원한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소련은 통화가 부족하다. 소련의 서방국가와의 무역은 그 중 타격을 겪어왔다.

즉, 싼 오일 달러 油價가 계속 상승하는한 자본주의 국가의 식량 수입과 기계류 수입에 특별한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1980년도 중반까지 원유 수출이 대서방 총수출의 2/3를 차지하였다. 이런 것들이 계속될리는 없다.

1985년 이후 유가가 40%까지 하락하였고 서방으로부터의 소련수칙의 80억 달러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달러화의 하락은 이 문제(적자)를 배가시켜 왔다. 왜냐하면 소련이 오일 수출로 달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럽통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수입에 있어서도 모두 통화 강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1985년 후반에 1 배럴로 구입할 수 있었던 같은 가격의 서독제작용 연장을 구입하는데 약 3 배럴의 오일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왔다.

식량 구입에 필요한 외화가 덜 강세였기 때문이 아니라 평년작 이상의 수확이 이 쇼크를 완화시킬 수가 있었다.

서방국가로부터 수입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하여 소련은 여분의 오일을 더 판매하고, 더 많은 외화를 빌리며(소련의 부채는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을 판매하여야 했다. (CIA는 소련의 금 보유량이 300억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조치들 중 어느 것도 영구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했다.

소련은 더 이상 오일을 판매해서 부강해질 수 없으며 고객들에게 충분한 시베리아산 가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방세계에서 팔 수 있는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Gorbachev는 폴란드가 외채로 인하여 파탄을 맞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할 것이다. 갑작스런 금 판매는 금값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서방국가로부터 미래의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련 공장들은 더 많은 기계류 판매를 시작하여야만 할 것이다.

Gorbachev는 암흑의 시기로부터 소련의 대외무역을 급속히 전향시켰다.

스탈린 체제이후, 거의 모든 무역은 대외 무역장

관의 통제하에서 몇몇 전문화된 업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7년초부터 약 20명의 장관들과 70개의 커다란 공장들에게 외국 고객 및 공급자들과의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수출 촉진책으로서, 공장들은 현재 이론적으로 외화획득액의 반(외화배분은 제품에 따라 다름)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수입을 위해 외국통화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

소련과 서방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현재 소련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대한 개혁은 국가의 대외무역 독점을 막을 필요성이 없어 중단되었다. 대외무역 장관직은 개편되었고, 재임명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권한이 축소되었지만 대외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국가위원회는 전반적인 대외 무역체제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모든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낙관적 측면에서 볼 때, 소련에 있는 서방의 실업인 말에 의하면 소련은 그들의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전보다 손쉬워졌다고 전한다.

뿐만아니라 개혁의 주요 결과는 또한 많은 혼란을 자초해 왔다고 전한다.

관료주의적 내부싸움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조직이 책임을 지고 있는냐에 관한 것이었다. 즉 대외무역 장관은 논쟁없이 그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몇몇 개혁들은 표면적인 것처럼 보였다.

정부의 대외무역기구들은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장관들을 맞이하였으나, 서방 실업계 인사들은 똑같은 책상에 앉아 있고, 똑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똑같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소련인의 대외무역에 대한 경험부족은 커다란 문제가 되어왔다. 공장들은(예를 들면, 국제적인 지불수속을 밟는데 있어) 가장 단순한 운영을 실시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다. 대외 무역은행인 Vneshekonombank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은 창문을 통해 대외무역 장관을 탐욕스럽게 응시하고 모스크바 시내

에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을 경우만 편리함을 깨닫게 되곤 한다.

이제 관리들은 공장 매니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방방곡곡에 파견시켜야 하며 “공장 매니저들이 갖는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공장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새로운 무역 권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매니저들은 서방의 신기술 구매를 위하여 서방세계로 여행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니저들은 이러한 새로운 권한에 수반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즉, 지금부터 매니저들은 만일 일들이 그릇 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가 두려워졌다. 정통한 서방실업인은 1987년에 “절망적으로 무경험한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장기적으로 지체된 것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다. 즉 통상 3개월이 걸리던 계약협상이 자체 결정이 지연됨으로 10개월이 걸렸던 것이다.

소련 무역업자들도 자신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공공조직의 유통망과, 사후판매관리(A/S), 재정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기구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의 새로운 대외 무역기구들 중의 하나는 소련에서는 광고책자 인쇄가 지연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프린트된 그럴듯한 광고책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소련에서 가장 극심한 불만은 어렵게 번 외화 소지를 허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장들은 외화를 벌기 위한 판매대금을 루블화로 지불받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그들이 번 외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외화의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매달 무역업자들은 그들의 “會計記錄장부”에 외화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회계보고서를 받는다.

문제는 무역업자들이 외화를 요구했을 때 외화가 항상 모자란다는 점이다. 어떤 공장들은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제품수입을 위한 외화를 지

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금 지불 지연은 소련에 제품을 판매하는 서방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문제점이 되었다.

더 신속성있는 외화 배당을 위해, 기업체들은 결국 다른 소련 공장들의 외화보유 잔고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절차를 밟는데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10. 합작투자 및 가공합작

Gorbachev가 소련 본토에서 자본주의 기업들이 소수의 합작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뉴스를 서방의 언론이 표제로 다루었다.

그러나 Gorbachev의 대외 무역개혁정책 중 다른 것들처럼 합작투자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기대되었던 바이다.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을 때 자본주의자들이 갑자기 몰려오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방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대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했다.

합작투자에 대한 소련의 법률은 서둘러서 제정되었으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 소련측 합작 파트너는 적어도 주식의 51%를 소유해야만 했다. 여하한 외화이트든 이윤송금은 소비한 외화액 만큼을 벌어서 상쇄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소련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

합작기업들은 국가경제계획에 영향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으나 외국 무역망을 통하여 소련 공급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규칙들 중 몇몇은 많이 수정 약화되어 9월에 통과되었으나 뜻있는 서방 당사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들은 Staff를 고용하고 해고함에 있어 얼마나 말이 많을 것인가? 국내공급을 못받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국내가와 국제가격은 어떻게 바꾸어 되돌려가지고 갈 것인가? 등등...

소련인들은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법률을 신속 성있게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제일의 합작기업을 만든다 해도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합작 당사자들이 평탄하게 함께 사업을 하려면 해결해야 할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근본적인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되는 점들이 소련과 서방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인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더 많이 수출을 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서방업체들은 소련자체에 더 많이 팔기를 원한다.

1987년말까지, 약 20개의 합작투자가 있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첫째 실적치고는 꽤 감동적인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은 하찮은 것이다. 나머지 건들은 작금의 유행처럼 억지로 꾸며 만든 것이다.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들 합작건들은 거의 위험부담이 없는 것 같고 사업은 별개의 모습으로 잘 진행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상호교환 구매형태와 같은 낡은 협동체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많은 서방업체들은 합작기업에 관해 말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런 말들이 소련의 고객들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얼마동안, 합작투자는 실행된 것보다는 설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Gorbachev는 소련을 더욱 개방하고 세계 무역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외교문제에서 그의 탁월한 재주는 두가지 종류의 장벽을 낮추는데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서방측이 하이테크분야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소련생산공장들이 서방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갖추기 전에 직면하게 될 보호주의 장벽, 이 두가지가 될 것이다. 서독정부 외무장관 Hans Dietrich Genscher 같은 인물을 포함하는 그의 영향력 있는 동맹을 찾았다는 것은 C-OCOM 규정에 묶여 있는 서방의 전략 수출 통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방의 시장을 더욱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소련은 GATT에 가입하고 EEC와 협정을 맺기를 원한다.

그러나 소련이 추구하는 다이나믹하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이룩하려면 현재까지 개방경제를 지향했던 것 보다 더 개방된 경제체제를 위한 주춧돌은 발걸음을 떼놓는 시도를 해야하는 멀고도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서방국가들에게 중요한 점은 교역의 양이 아니라 교역의 형태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계획경제의 정책 입안자들이 선호하던 양 위주의 프로젝트 때문에 수입의 우선순위가 말살당하기 일쑤였다. 즉, 녹슨 공장들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비나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같은 것을 수입하는 것은 무시당해 왔다. 사업가는 양 위주의 목적으로 서방세계와 접촉하여야 하며 어렵고 복잡한 무역형태를 취해야 하며 난해한 합작을 모색해야만 했다.

일단 새로운 대외무역 형태의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소련의 경제는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현재처럼 철저하게 차단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련의 공장들은 서방세계에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국내의 비수요 소비자들에게 힘안들이고 쉽게 물품공급이 가능한데 소련인들이 무엇때문에 서방시장 수요에 부합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소련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심하게 경쟁할 필요가 있다던지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임의로 매기는 가격의 가치를 따지려고 들때만 정신을 차릴 것이다. 과연 소련체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겠는가? 현재 소련의 가격제도는 형편없이 왜곡되어 있어서 계획경제의 계획수립자들은 어느제품이 수출을 하는데 이익이 남고 어떤 제품이 그렇지 못한지조차도 말할 수가 없다. 최근까지 수출업자들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하면 얼마를 벌고 이득을 얼마나 남기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 든다. 수출을 해보았자 국내 가격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소련 화폐로 받는다. 외화는 구경도 못한다.

소련이 필요한 것은 단일 환율로 외국시장과 직

접연관을 맺는 일이다. 현재, 소련은 국내에서 나약한 물가를 보상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제품을 위해 사용되는 2,000개가 넘는 각기다른 환율을 가지고 있다. 借換이 가능한 루블화는 COMECON과의 무역을 포함하여 소련의 대외무역에 혁명적인 것이었으나 이들 수수께끼같은 각기다른 환율들은 어색한 물물교환식 교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설사 관리들이 소련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인식한다 할지라도, 借換이 가능한 루블은 적어도 현재 공식적인 토의 안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일보한다는 것은 루블화가 국내 유통시 借換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헝가리가 이미 시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루블화로 소련 공장들이 단일 환율로 외환을 사고 파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실행가능 여부는 전체개혁정책하의 기업들도 물론 Gorbachev의 물가에 대한 진척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11. 비뚤어진 거울의 왕국

소련의 물가는 공급과 수요, 또는 생산가격과 관계가 없다. 사실, 그들은 정책 수립자들의 임기응변식(변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과도 관련없다. 물가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약 50만개의 각기 다른 가격을 설정해 놓았다. 이는 막대한 작업량이며 너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관료행정 체제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전까지는 10년 또는 그 이상 변동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곤 했다.

물가라는 것은 그 가격이 제공하는 가치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유익하며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가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공장 스스로가 많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현재로서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격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가격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 “소련인들은 비뚤어진 거울의 왕국에 살고 있다”고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인 Mr. Nikolai Shmelev가 말했다.

“실제로 큰 것이 우리에게서 작게 보이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직선은 곡선으로, 곡선은 직선으로 보이는 것이다. 개혁은 진실을 반영하는 물가를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몇몇 기초 식품가격이 20년 동안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식품상점 앞의 긴 행렬을 만드는 이유중에 하나며 또한 이것이 인플레이를 위협하는 통화를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에 현금을 배개말에 감추어 두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농부들은 때때로 빵이 매우 싸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에게 빵을 먹인다. 국영상점에서 쇠고기 1kg이 1.8루블에 팔리고 대신에 정부는 3루블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런 상점에서 연한 쇠고기를 찾을 수 없다는데 의문을 제기한다. 모스크바의 개인시장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좋은 쇠고기를 살 수는 있으나 가격면에서는 12월에 1kg에 10루블이었는데 이는 평균 소련인 1일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식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연간 총 600억 루블인데 이는 국가예산의 15%에 해당한다.

물가를 올려서 이 보조금을 감축시키는 아이디어는 정치가들이 이해할 수 있으나 역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다. 식품은 소련인이 서방세계인들(미국인들은 1/5미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인들처럼, 소련인들도 식품 가격상승에 특히 민감하다. Gorbachev는 Gdansk나 Minsk나 Pinsk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Gorbachev는 더많은 식품이 비싼 가격으로 협동 공판장이나 개인상점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고무시킴으로써 뒷거래로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국영상점에서 가격인상을 실시함으로써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상은 소득을 높여 준다던가, 연금이나 기타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폴란드에서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소수의 소련인들이 하영든 Gorbachev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제조자 가격은 정치인들에게는 민감하다. 물가를 정하는 것은 권력이다. 관료주의자들이 물가를 통제하는 한, 공장들이 상호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 될 것이다.

개혁을 반대하는 관료주의의 사람들은 관료주의 상태로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혁자들에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공장들의 물자부족과 독점권은 물가상승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Gorbachev 팀은 오늘날 소련에서 많은 물자부족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자공급은 물자를 아끼려는 정책이 약하였기 때문에 낭비되어 왔고 또한 공장들이 분배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자 매점행위가 있어 왔다. 이런 현상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시도가 실행에 옮겨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다.

산업에서의 새로운 물가정책이 199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즉, 농산품에 대한 새로운 구매가격 정책은 1년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극소수의 가격이 중점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한다.

가격정책은 오일이나 기타 원자재와 같은 주요한 상품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런 가격을 입안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절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더 비싸게 만들 것이다. 또다른 심한 경우에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기타 상품 경우에 가격을 자유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간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계약을 함으로써 가격협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한선·하한선 사이에 있는 가격을 물자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가격을 상한선까지 치솟게 만들 수도 있

다.

이는 다시말해 약간의 경쟁이 있을 때까지는 인플레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인플레이 억제효과가 높아지거나 아주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점차적으로 완전자유체제 또는 반자유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물가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가격을 결정하거나 감시하거나 또 다른 “지시”를 하면서 존재할 것이다.

국가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간섭하여야 할까?

소비자 가격인상에 관한 규모와 시기에 관한 열렬한 토론은 개혁의 가장 큰 논란의 장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가격형성 이외에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두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첫째로, 지금보다 더 복잡한 재무제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모든 투자는 영구히 상환 불능이 된다해도 신용이라는 미명아래 국가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다. 지금은 기업들이 이윤이나 은행신용대부로 거의 모든 투자를 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블화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융통성있는 재무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년초 초보적인 출발은 이루어졌다. 새로 명명된 6개의 특수은행들은 전보다 더 독립성을 갖추었다. 전에는 이들 은행은 국립은행의 부속 부서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제도에는 어떠한 경쟁도 아직 없으며, 화폐를 투자할만한 시장도 없다. 즉, 공장들은 공장들에게 위탁된 은행을 가지고 있으며, 공장들은 은행들이 제공하는 규정들로 꼭 차 있다.

소련은 헝가리와 중공을 뒤따르지 않았으며, 투자를 위해 1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루블화 투자가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는 금융시장을 설립하지도 않았다. 물가가 이윤을 보장할만한 기준치를 얻을 때까지는 국가는 투자가 그릇된 곳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 역할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 마찬가지로 임금문제도 중요하다. 소련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건전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일단 시작은 되었다.

Gorbachev는 과학자들과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임금을 상승시켜 왔다. 그는 소위 말하는 “근로기준”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다시말해 벌기는 어려우나 상당히 신뢰성을 갖는다는 상여금제도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과거의 성과급제도 시행결과 성과급이 급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Byelorussian 철도와 같은 실험적인 실례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즉 이 철도회사는 수천의 잉여노동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업 종사자들이 저축한 돈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 중 몇몇은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서서히 시행해 가고 있다.

Gorbachev는 계속해서 “평준화 성향”이라고 부르는 인민들의 성향에 대하여 공격을 해왔다. (작업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야 한다는 케케묵은 Slogan을 계속 주장한다.) 이 평준화 성향이라는 경향은 사람들이 일을 조금 더 하든, 덜 하든 똑같이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도덕성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파괴적인 충격을 가해 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무엇이 행하여져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과 제안된 치유책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별개인 것이다.

이는 Perestroika 개혁이 최우선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치에 달려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12 역사적 전환점에 선 인물 - Gorbachev

Gorbachev가 그의 개혁을 의도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으나, 왜 그러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공산주의의 개혁자들(예, 중공,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로비아)은 그들 사이의 개혁 이전에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책을

시도해 왔던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 못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개방정책(Glasnost)에 대한 공산주의 세계의 1등상은 아마도 유고슬로비아의 Slovenia의 것이 될 것이며, 소련은 그 뒤로서 4~5위를 차지할 것이다. 합법적인 사기업 분야는 소련보다도 폴란드 경제에 있어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헝가리가 산업부문별 부서를 모두 폐지하고 단 하나의 산업부서를 창안한 반면, 15개 소련 공화국은 여전히 모스크바에서 큰 부서만 대충 세어보기도 전에 “800개가 넘는 장관직과 부서직”을 가지고 있다.

소련이 우선적으로 토지임대의 개념을 선호하는지 결정하기도 전에 중공은 이미 농부들에게 토지임대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개념으로 전향해 왔다. 이와 같은 소련의 폐단은 더 열거할 수도 있다.

Gorbachev主義는 그 자체가 전면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후방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인 것이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개혁이 주동국가와는 달리, Kremlin 당국은 개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광범하고 복잡한 우려를 낳게 하는 윤리 제국이라는 데서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소련은 또한 다른 레닌주의 나라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깊이 침식된 타성에 젖어온 국가이다.

Gorbachev의 대담성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파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그는 서방으로부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소련인들은 자기이익에 반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새로운 개혁에 대한 조심스러움, 두려움 때문에 또한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도 개혁정책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가장 무서운 반대 형태는 반대 의사를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며 무관심한 태도가 두려운 것이다. 즉 개혁에 대한 정부지시를 무시해 버린단가가 지시를 따르는 척 하는 人民들의 태도가 더 문제인 것이다.

한편, 개방정책(Glasnost)을 마치 공기를 바꾸어 놓으려는 것과 같다는 해석을 한 소련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Gorbachev가 지난 2월 미국인들에게 “사람들이 등뒤에서 개혁정책(Perestroika)을 험담하고 있다”고 한 말을 전격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옛 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

주요 개혁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으나, 새로운 규칙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또한 유통의 악순환(물자부족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유화가 필요하지만 물자부족 현상이 즉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시장자유화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악순환)은 어찌되었건 정상화시켜야만 한다.

개혁은 불운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소련의 혁명적 개혁(개혁/개방)은 오일가와 달러화의 가치가 싸졌을때 일거에 해치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무역을 이용하여 소련내 투자제한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원에 허덕이고 있는 軍도 있다.

소련경제의 현대화가 소련이 전쟁에서 이기는 현대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몇몇 군간부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Gorbachev의 개혁으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Gorbachev의 “평화공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Gorbachev가 군비의 갑작스러운 증가 요청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군비를 삭감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중요한 것은, 과격한 당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만족하는 조직인 공산당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을 마지못해 하는 멤버들은 현재 Gorbachev가 속력을 늦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가을 당의 개혁 반대자들에게 무절제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축출된 열성적인 모스크바 당수인 Mr. Boris Yeltsin은 개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는 개방정책(Glasnost)의 한계를 정하였다고

하여 노벨상을 받을만하다고 하겠으나 모스크바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당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당원들은 권력과 지위를 잃게 되어 있다. 만일 당원들이 경제의 운영에 관해서 매일같이 간섭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면 수많은 당원들이 무엇을 하여야만 할까?

Gorbachev는 6월에 당 특별회의가 열리면 물가와 농업에 관한 과감한 정책과 관료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Gorbachev 자신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역설적인 것은 Gorbachev가 수많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개혁을 수용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개혁 반대파들을 충분히 무마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받는다. 그 자신의 캠페인이 Khrushchev나 Kosygin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불운의 운명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의 보좌관들은 이번만은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층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계급의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개혁정책은 단지 고립된 사회의 일부 분만 개혁하려드는 것이 아니라 소련사회의 모든 면을 골고루 개혁하고 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3. 진정한 Bolshevik 신봉자

Gorbachev는 볼셰비티 신봉자이면서도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Gorbachev는 그의 Bolshevik 영웅인 레닌과 똑같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개혁을 위한 원시적 혁명 수단은 쓰지 않으면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는 놀라운 재능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물이다.

당내 다수 요원의 지지를 받기도 힘든 터에 1917